

'구례 천은사'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2년 연속 선정

CNN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미스터선샤인 촬영지로 인기



구례군에 소재한 '천은사 상생의 길 및 소나무 숲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2년도 안심관광지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안심관광지는 방역지침 완화 및 일상회복 전환 단계에 맞춰 여행지 대상 안전한 여행문화 조성 및 관광객의 안전을 겸비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지자체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5월에 선정됐다.

군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문

제로 30년간 감등을 벗어났으나,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입장료를 폐지하고 2020년 12월에 '천은사 상생의 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 길은 천은사 주변의 소나무 숲길과 호수를 순환하는 3.3km의 순환형 탐방로다. 입구에서 시작해 천은사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과 천은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수변 산책로는 숲의 상쾌한 기운과 사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한편, 상생의 길은 전라남도 걷고 싶은 전남 숲길에도 선정된 바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업체당 최대 200만원

순천시는 안전한 관광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의 안전시설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인성 높은

야광소화기, 피난유도선 등 지원품목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순천소방서와 협업체각 각종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화재 예방·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정원박람회 대비하여 순천소방서와의 협동하여 수시로 소방안전 시설을 점검함으로써 화재발생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순천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교육 개강

고흥군은 지난 23일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고흥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제12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교육'을 개강했다.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소 이후 현재까지 11기에 걸쳐 33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귀어학교 교육을 운영하여 예비 귀어인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이번 제12기 교육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관

내 외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선도농가를 초빙하여 귀농귀촌 준비와 정착에 도움이 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론, 체험으로 구성, 운영된다.

고흥군은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내사량 고흥기금 100억원을 활용한 다양한 귀농귀촌관련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까지 무려 6000여명의 인구유입과 매년 다방면의 귀농귀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명실상부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최혁민 기자

광양시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광양시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지난 10~14일 작성하고 명부업감기간 등을 거쳐 지난 20일 확정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0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12만6404명으로 시 인구의 83.5%에 해당하며 남성은 6만6270명(52.4%), 여성은 6만134명(47.6%)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선거인은 10대 3107명(2.5%), 20대 1만9236명(15.2%), 30대 1만8100명(14.3%), 40대 2만3154명(18.3%), 50대 2만9799명(23.5%), 60대 1만8835명(14.9%), 70대 이상 1만4373명(11.4%)이다.

지역별로는 중마동이 4만5365명(35.8%)으로 가장 높았고 광양읍 4만374명(31.9%), 광영동 1만20명(7.9%), 금호동 9582명(7.6%), 옥곡

면 4521명(3.6%), 골약동 3492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 27~28일(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일인 6월 1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투표시간은 06~18시이며 단, 코로나19 격리자 등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 2일 차인 5월 28일 18:30~20:00에 투표하거나 선거일인 6월 1일 18:30~19:30에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세대별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소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광양=조순의 기자

여수 '섬섬여수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 활발

올해 8억 원 투입...홍보 마케팅, 유통 다각화 중점

여수시가 돌산갯. 거문도해풍속에 이어 지역 대표 농특산물 '옥수수'의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시는 2년차를 맞은 '옥수수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에 올해까지 대비 1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섬섬여수옥수수 디자인과 캐릭터(여옥이, 수옥이), 옥수수빵, 콘, 조청, 찐옥수수, 국수 등 5종의 상품을 개발하고, 포장디자인과 식품안전관리(HACCP) 가공시설 구

축에 1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옥수수과자, 찐빵, 기능성차 등을 상품화하고 참여업체간 재료 구입과 상품 생산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TV홍보,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학교급식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과 유통 다각화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옥수수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도 나선다. 7월 이후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불안정해지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참여업체와의 계약

재배를 늘려 판로와 가격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역 옥수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옥수수 재배 면적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는 전남 최대의 옥수수 주산지이지만, 그동안 옥수수 생산에 그쳐 주목받지 못했다"면서 "섬섬여수옥수수 브랜드화, 가공제품 상품화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해 옥수수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중에 "2022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조일환 기자

곡성 장미축제기간 한복 무료 대여소 '인기'

한복 입으면 섬진강기차마을 무료 입장



곡성군은 세계장미축제 기간(2022. 5. 21. ~ 6. 6.)과 6월 주말 동안 섬진강기차마을 정문 입구에서 한복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축제 기간에 맞춰 많은 방문객들에게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대여소 운영 기간 동안 한복을 입으면 섬진강기차마을 무료 입장 혜택도 주어진다.

한복 무료 대여소에는 100여 벌이 넘는 다양한 한복이 구비돼 있다. 갈수

록 접하기 어려워지는 한복을 이곳에서는 마음껏 입어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식 한복에서부터 쉽게 입어보기가 쉽지 않은 조선시대 한복도 착용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갓, 목화(목이 긴 신발), 장신구 등 다양한 소품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곡성군은 3년 연속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한복 무료 대여도 해당 사업의 일환이다. 이외에도 곡성문화원과 함께 '곡성, 한복을 입다'를 주제로 다양한 한복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섬진강기차마을 정문 입구를 한복문화거리로 조성해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복 전시관, 포토존, 전통놀이체험관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곡성=이상서 기자

순천 창작예술촌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입주작가 5인 선정

순천시가 2022년 창작예술촌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할 입주작가 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레지던시 사업은 예술가에게 작업공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전시지원 등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순천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입주작가는 순천의 지역성과 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한 시민 커뮤니티형 작품활동 계획을 가진 작가를 중심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최종 5인이 선발됐다.

올해는 단기 1기·2기(각 2명), 장기(1명)로 나누어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지원자 22명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단기 1기에 이시연(일러스트)·김성남(회화), 단기 2기에 이시영(조각설치)·윤보원(일러스트), 장기에 임산하(회화) 작가가 선정됐다.

선정된 작가들은 계약 기간에 따라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 공간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되며, 소정의 창작지원금과 작품 전시회 및 장안창작마당과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 지역행사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새롭게 입주한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활동에 순천을 입혀, 입주작가와 함께 순천의 문화예술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곡성군

Golden Rose Festival Season 2

제12회 곡성 세계장미축제

2022. 5. 21. 토 ~ 6. 6. 월

곡성섬진강기차마을